

국민 10명중 3명만 “현생활 만족”

■ 2006년 사회 통계조사 결과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회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 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생활고로 인한 자살 충동이 높게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10명중 3명이 직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기는가 하면 전체의 절반 가량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꼽을 만큼 취업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충동 높아져

우리나라에서 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10명중 3명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체의 28.9%에 불과했고 ‘보통’ 38.8%, ‘불만족’ 32.3%였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5%였고 ‘중간층’ 53.4%, ‘하층’ 45.2%였다.

또 15세 이상 인구의 10.3%는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충동 비율은 여성(9.0%)보다는 남성(11.5%)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12.7%)와 50대(11.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 직업고민 급등...공무원 선호

청소년(15~24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5.0%)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2년 6.9%에서 올해는 29.6%로 급등했다.

또 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1위는 국가기관(33.5%)이었고 대기업(17.1%), 법률회사 등 전문직기업(15.4%), 공기업(11.0%), 자영업(9.8%) 등이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업을 합칠 경우 청소년 두 명중

한 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선호 직업으로 꼽았다.

고소득층 10집중 2집은 ‘기러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사는 비율이 19.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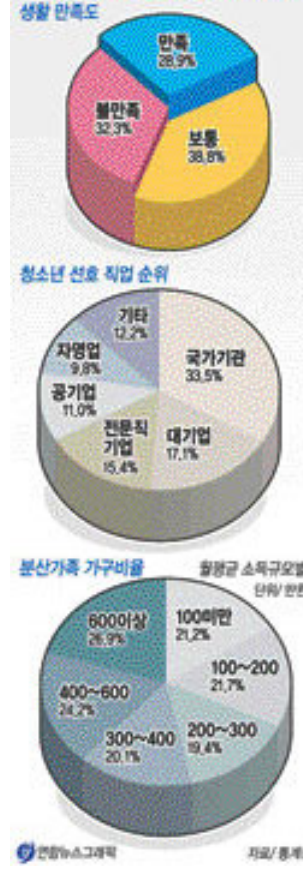
반면 300만~400만원 미만은 20.1%, 400만~600만원 미만은 24.2%로 점차 높아졌으며, 600만원 이상 가구는 26.9%에 달했다.

특히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는 그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고, 이 중 해외 거주 비율도 20.3%에 달해 ‘기러기’가족의 비율이 고소득층일 수록 높게 나타났다.

결혼에 대해서는 미혼 여성중 절반 수준인 52.6%만이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혼도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36.7% 그치는 등 미혼 여성들이 결혼관이 변해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6사회통계조사 주요 내용



현장과 시각

무성의 농정, 파프리카 뿐이라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지난 5월 말 전남도는 파프리카(착색 단고추)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발표했다. 도는 ▲병충해 없는 온실에서 재배하고 ▲운송중 감염을 막기 위해 방사로 덮은 뒤 컨테이너에 적재해야 미국 농림부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의 엄격한 통관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

전남도의 발표를 접한 지역 파프리카 재배농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비록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나 수출시장이라고 해야 오히려 일부 한 곳인 현실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는 관로 확보는 물론 가격 폭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전남 파프리카의 미국시장 개척은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남도나 농가 모두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는 ‘전무(全無)’한 상태다.

이에 반해 파프리카 재배농가와 면적이 전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경기도의 발빠른 준비는 가히 놀랄 만하다. 지난 8월경 경기도는 재배 농가 2명과 도 직원을 미국에 파견, 현지 시장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선박 물류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겨울에 생산되는 파프리카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미 수출준비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유리온실 2개 단지(4.5ha)에 도비 9억과 시·군비 3억 등 모두 15억 원을 들여 방충망 설치 등 미국 기준을 충족시키는 파프리카 재배시설을 보장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시설을 완료해 ‘원예전문 생산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11월 수확분부터 수출길에 나선다는 ‘로드 맵’까지 완벽하게 짜놓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와 지역 파프리카 재배농가는 경기도처럼 ‘일사 불란향’ 준비 태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화순 도곡에서 만난 파프리카 재배농 A(47)씨는 “현재 도곡에 미국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재배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설자금 지원 등 전남도에서 ‘애정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관심을 크게 갖지 않고 있다”며 수출이 안되는 요인을 농민들 탓으로 돌렸다.

요즘 전남도내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은 유통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증가와 일본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가격 폭락, 게다가 엔화 약세까지 겹쳐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남도나 관련 시·군에서는 대미 수출 가능성 타진, 내수확대 방안 등 파프리카 농가들의 어려움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실효성은 전혀 없이 뜬 구름 잡기 식 대책이나 늘어놓는 농정이 또 다른 작목에는 없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song@kwangju.co.kr

방송사 사장부인 제이유 활동 수사

내부 조직변경 고위층 유인 여부도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4일 주주도 회장의 지시로 이 그룹의 전산팀장이 회원의 사업자 조직(라인)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 조직 변경이 로비 자금 확보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방송사 사장 부인 A씨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정·관계 인사 가족의 전산내역을 조작해 특혜수당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흥(36) 전산팀장으로부터 “주 회장의 지시로 회원의 사업자 조직(라인)을 변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의도적인 조직 변경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흥씨가 주 회장과 정모(수배

중) 제이유네트워크 사장 등의 지시로 수차례 조직 변경을 했지만 내부적인 결재를 거쳤다고 진술했다”며 “조직적인 전산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사 사장의 부인인 A씨는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이유그룹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많은 사업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가입 경위와 활동내역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방송사는 “사장 부인은 제이유의 회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 사실도 없었고 돈을 벌지도 못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시 기상예보 한국군 전환

지금까지 주한 미군이 담당해오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전시 기상예보 임무가 연말로 한국군으로 전환된다. 한미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에서 김관진 합참의장(왼쪽)과 버릴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임무전환 서명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전품목 100% 실크웨어

Jasmi

주요문의 02-512-8978

(주) 자스미실크